

마을이다.

백제 때 마산현이었고 신라시대에는 가림군의 마산현 소속이었다. 고려 때 임천의 한산현 소속이었으며 조선 초 한산군이었던가 조선 말 동상면의 지역으로 소나무가 많아 송림리라 했는데, 1914년 행정 구역 개편에 따라 축산리 일부를 합하여 송림리라 해서 서천군 한산면에 편입되었다. 그 후 1973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 6542호에 의해 마산면에 편입된 마을이다.

송용굴이라 부르는 마을이 중심 마을이며, 윗마을을 위뜸, 아랫마을을 아래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사당굴은 옛날 사정동이라고도 불렀다 하는데, 말타고 활쏘던 터가 있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곳에서 돌로 만든 화살촉이 나왔다 한다.

사당굴이라 부르게 된 뜻은 송림이 우거진 산속에 성황당을 지어놓고 마을의 평안과 잡귀를 몰아내는 당제, 거리제 등을 지낸데서 비롯되었다 한다.

위뜸에는 절터가 있어 청간도사가 살았었다는 전설이 전해지며, 그곳의 물이 좋아 지금도 마을의 상수원으로 활용한다.

뒷산을 고주봉이라 하고 앞산을 안산이라 하는데, 안산에서 용이 고주봉으로 올라가는 형상이라 비룡산천이라는 명당이라고 전해진다.

한산면에서 마산면으로 편입되다 보니 처음에는 소외된 마을이었으나 지금은 인정을 받는 마을로 며칠 씩 집을 비워도 이웃에서 가축을 돌봐주는가 하면 도둑이 없어 문을 잠글 필요가 없는 마을이라 한다.

제8장 시초면(時草面)

시초면은 지리적으로 서천, 문산, 마산, 기산면의 접경지로 봉선저수지와 서천군에서 가장 높은 명산으로 알려진 천방산을 끼고 있는 아름다운 고장이다. 이 지역 주민들은 단합이 잘되어 천방산 가꾸기 사업을 펼치고 있는 등 아름다운 지역의 여건을 살리는데 노력하고 있다.

총 18.7km(경지 8.1, 임야 6.6, 유지 등 기타 4.0)의 비교적 작은 지역으로 2006년 12월 31일 현재 762가구에 1천5백89명이 살고 있으며, 쌀이 주산이고, 생강, 취나물, 부추, 오이, 쪽파 등을 재배하고, 일부 양계 등 가축을 길러 소득을 올리고 있다.

백제 때 설림군에 속했던 지역이며, 신라시대 서림군에 속했고, 고려 때 1018년(현종 9) 가림군의 영현인 서림현에 속했다가 1314(충숙왕 원년)에는 지서주사의 고을이었다. 조선시대 초 1413(태종 13)에 서천군 지역으로 새울의 이름을 따서 초처면(草處面)이라 하여 초리 외 7개 동리를 관할하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시왕면의 주절 외 11개 동리와 문장리의 한강 유지, 선동, 생암, 화리의 4개리와 판산면의 동산, 정산, 삼수의 3개 동리의 각 일부, 두산면의 천초리 일부, 한산군 하북면의 신리를 통합하여 시왕과 초처의 이름을 따서 시초면이라 하여 봉선, 선암, 신곡, 신흥, 용곡, 초현, 태성, 풍정, 후암, 선동의 10개리를 관할 서천군에 편입되었다.

초현리에 면소재지가 있으며, 선암리가 면소재지에서 가장 먼 곳에 위치해 있다. 동쪽으로 태성리가 동경 126°28', 서쪽으로 선동리가 동경 126°41'에 위치하고, 남쪽으로는 선암리가 북위

36°41′, 후암리가 북위 36°81′에 자리 잡고 있다. 초등학교 1개소의 교육시설이 있고 의료시설로 보건지소와 선동 보건진료소가 주민들의 건강을 담당하고 있다.

- 초현리(草峴里)

초현리는 백제 때 설립군 이었고, 신라와 고려시대에는 서림군 지역이었다. 조선 초 서천군에 속했으며, 조선 말 서천군 초치면의 지역이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의해 홍현리(紅峴里), 구정리(九丁里), 신기리(新基里)와 문장면 화리(禾里) 일부, 두산면 천초리(千草里)를 합쳐 천초와 홍현의 이름을 따서 초현리라 해서 서천군 시초면에 편입되었다.

초현리는 홍현리와 천초리로 나누어져 있다.

홍현리는 시초면 소재지로 각 기관이 모여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소재지가 작다 보니 면소재인 데도 식당이 없어 주민들과 직장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도 하다.

홍현리는 마을 지형이 기러기처럼 생겼다 하며, 옛날 마을 주변에서 빨간 흙이 많이 나왔다 하여 홍현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동아시, 구억뜸, 서아시, 맹매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동아시와 서아시는 마을 동쪽과 서쪽에 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 구억뜸은 돌고개 동쪽으로 구석에 자리 잡았다 해서 구석뜸이라 부르다가 변하여 구억뜸이 되었다고 전한다.

맹매는 홍현 서쪽에 자리 잡고 있는 지역으로 땅이 기름져 눈먼 봉사가 농사를 지어도 수확이 좋다는 들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전해지며, 한 여름이면 매미 소리가 처량하고 겨울이면 부엉이 울음소리가 처량하게 들리던 곳이라 한다. 홍현 동쪽으로 자리 잡은 지역이 동아시 인데, 그 마을 동쪽으로 펼쳐진 들을 창마룻들이라 한다. 이는 이곳에 옛날 사창, 즉 창고가 있었던 데서 연유되었다고 한다.

돌고개라 하는 곳은 문산면 문장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며 돌이 많은 고개라서 붙여진 이름이고, 고개 아래에 있는 마을도 고개 이름을 따서 돌고개라 한다.

마을 인구 45%가 평해 구씨로 구성되어 있다.

천초에는 천방굴이라 부르는 지역이 있는데, 옛날 천방산에 얽힌 전설이 전해지고 있는 천방사가 있던 곳이라서 천방곡, 천방동이라 하다가 천방굴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또한 천초라 부르는 지역은 마을 뒤에 자리 잡아 뒷굴이라고도 하는데 많은 풀로 숲을 이룬 그 안쪽에 마을이 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며, 초막동은 마을이 처음 생길 때 산막과 초막으로부터 시작된 마을이라 그렇게 불렀다고 한다. 초막동에는 큰 팽나무가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

천초 서쪽에 사동 또는 절굴이라 하는 지역이 있는데, 옛날에 절터가 있는 지역이라 한다.

천방산 주변에는 묘지가 많아 시제촌으로도 알려지고 있다.



초현리 전경

-선동리(仙東里)



선동리 한강마을 전경

선동리는 백제 때 설림군에 속했던 마을이며, 신라시대와 고려시대에는 서림군에 속했던 곳이다. 조선 태종 13년 서천군이었고 조선 말 서천군 문장면의 지역으로 지형이 신선이 글을 읽는 형국이라 한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한강리, 유지리와 판산면 동산리 일부를 합하여 선동리라 해서 서천군 시초면에 편입되었다.

선동리는 1반 유선과 2반 고향으로 나누어진다.

선동 북쪽에 있는 마을을 버재울이라고 하며 유지, 유지리 라고도 하는데, 옛날에는 버드나무 잎이 늘어서 밖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마을만은 항상 태평세월이었다 하며, 버드나무가 많은 마을이라 유지(柳枝)라 하다가 변하여 버재울이 되었다 한다.

선동 서쪽으로 자리 잡은 마을을 한강이라 하는데, 이는 산세에 비해서 냇물이 귀하고 냇물에 고기가 없어 인심이나마 후해져야겠다는 중국의 한 시인의 시에 따라 한강이라 부르게 된 마을이라 한다. 또한 옛날 강이었던 곳이라는 말도 전해지고 있다.

남쪽에 있는 지역을 선동이라 하는데, 이곳 지형이 선인이 글을 읽는 형상 같다 하여 선동리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마을 남쪽으로 펼쳐진 들을 갈마릿들이라 하며, 그 뒤쪽에 있는 산을 한강쪽

뿌리산 이라고 한다.

고여라고 하는 지역은 아래고여와 윗고여로 나누어지는데, 조선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건국하고 충성을 원하였을 때 개경의 한 선비가 불사이군의 길을 택하기 위해 산간지역으로만 유랑하다가 이곳에 산막을 짓고 정착했다 한다. 그 선비는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것이 헛된 것임을 한탄하고, 산과 더불어 살았다 하며, 따라서 이 마을은 신선마을로 불리던 곳이라 한다.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이곳에 옛날 고역이라는 역이 있었다고 하나 기록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

중뚝은 가운데 있는 마을이라서 붙여진 이름이다.

나희집 전 국회의원이 이 마을 출신이다.

-선암리(仙岩里)

선암리는 백제 때 설림군이었으며 신라 때는 서림군에 속했고, 고려 때도 서림군이었던 지역이다. 조선 초 서천군에 속했다가 조선 말 서천군 문장면(文章面)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생암리, 선동리 일부와 초치면 석교리 일부, 판산면의 정산리, 삼수동 각 일부를 합하여 선암이라 해서 서천군 시초면에 편입되었다.

선암은 1리와 2리로 구분된다.

그절매라 부르는 지역이 있는데, 생바위 동북쪽에 있으며 마을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다. 그 산의 형태가 마치 계가 옆드린 형국이라 하는데, 계는 발이 열개밖에 없으므로 이 마을에서는 가호수가 10호를 넘으면 마을에 불길한 일이 많이 생긴다 하여 10호를 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한다. 전에 절이 있었다고 하며, 옛날에는 그이매라 부르던 것이 변하여 그절매가 되었다고 전해지며, 계가 많이 나왔다고도 한다.

생바위 북쪽 와룡구지라고 하는 지역은 못이 있던 지역으로 옛날 백년을 땅속에서 수도하던 이 무기가 용으로 승천한 못이 있는 마을이라 해서 와룡구지라 불렀다 하며, 용이 누워있는 형국이라 와룡이라고도 불렀고, 마을 앞 독을 용구독이라 했는데 지금은 경지정리로 없어졌다.

마을 앞 들 가운데 조그만 섬처럼 솟아있는 지역이 있는데 이곳을 신들매라 한다. 신들매는 동학란 때 동학군이 관군에게 패하여 도망치다가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데, 땅이 질어서 신고 있는 신을 벗어두고 도망쳤던 자리라 해서 신들매라고 부르다가 신들매가 되었다는 설이 전해지고 있다. 또한 옛날 마을 앞까지 바다였을 당시 뱃사람들이 들어와 신에 묻은 흙을 털어서 쌓인 흙으로 생긴 섬이라고도 전해진다. 지금도 그곳에서는 조개껍질 등이 나온다고 한다.

마을 산에 채석광이 있어 일본으로 수출했었으며 부근 산에서 돌칼, 엽전 등이 발굴되기도 했었다.

생암은 생바위라고도 한다. 마을 앞에 한산 이씨의 선산이 있었고 그 앞으로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를 생암바위라고 부르며, 그 바위는 매일 밤 해가 지면 살아서 조금씩 커졌다가 다음날 먼동이 틀 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바위가 커졌다 작아졌다 한다고 해서 생바위라고 부른다 하고, 이 바위로 인해 이지역도 생암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갈머리는 마을 뒷산에 목마른 말이 목을 축이는 갈마음수형(渴馬飲水形)의 명당이 있다고 전해 오고 있는 곳으로, 옛터, 갈마라고도 불려오던 곳이다.

-신흥리(新興里)



신흥리 전경

백제 때 설림군에 속했던 마을로 신라 때와 고려 때는 서림군 지역이었다. 조선 초 1413년 서천군이었던가 조선 말 서천군 초치면의 지역으로 풀이 많이 있다 해서 새울 또는 초리라 했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초리, 석교리, 신기리의 각 일부를 합하여 신흥리라 해서 서천군 시초면에 편입되었다.

신흥리는 석교와 초리로 나누어진다.

신흥리는 조선시대 초치면 당시의 소재지였었다 하며, 일제시대 주민들의 반대로 지금의 소재지로 옮겼다고 한다.

석교는 돌다리라고도 하는데 마을에 돌다리가 있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마을에 상사고개라 하는 고개가 있는데, 옛날 인가가 없어 재물과 목숨을 빼앗는 도둑이 가끔 나타나서 사람을 해치곤 한 고개라 상사고개라고 하다 생사고개라 변했으며, 행상골이라 부르기도 한다.

마을 뒤에 350여년 된 은행나무가 있는데 마을의 수호신으로 여겨 제사를 지냈었으나 지금은 그 풍습이 사라졌다.

마을 뒤 봉림산에서 매전마당이라 이르는 곳에 군사가 주둔했다는 터전이 있으며, 이곳에서 돌칼이 발견되기도 했다.

옛날 배가 들어왔을 것으로 추정되는 마을 동편 강구정이라는 곳에는 고려장터가 남아있다 하며, 석경(돌로 만든 거울) 등이 발견되었다고도 한다.

학독모랭이, 최구렁목이라고 하는 서편에서는 빗살무늬 기왓장을 많이 쌓아놓은 곳이 발견되어 와요지가 아니었나 추정되기도 한다. 20여 년 전만 해도 마을 앞 길산천 수문 조절문에서 매년 정월 대보름과 열셋새 날에 다리제를 지냈는데, 이는 마을에 홍수가 자주 들어 그로 인해 마을 농사를 망치는 경우와, 매년 그 곳에서 익사사고가 일어나 그에 대한 예방을 기원한 것이었다고 한다.

또한 이 마을이 남사당 본거지로 남사당패가 들어오면 신흥리에서 숙영하였다고 전한다.

-용곡리(龍谷里)

용곡리는 백제시대 설림군이었고, 신라 시대와 고려시대에는 서림군에 속했던 마을이다. 조선 초

서천군이었으며, 조선 말 서천군 초치면의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당곡리(堂谷里), 용구리(龍九里)를 합하여 용곡리라 해서 서천군 시초면에 편입되었다.

용구지라고 하는 지역은 마을에 용처럼 생긴 못이 있었다 하며, 옛날에는 용이 승천했다는 마을이라 용구지 또는 용구리라 했다고 전해진다. 용구지 못에는 용이 살았다 한다.

용구지 서쪽에 있는 마을을 당골이라 한다. 옛날 마을에 신당이 있어 당골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하며, 당골 위쪽으로 자리한 마을을 위당골, 북쪽에 자리한 마을을 작은절골이라 부른다. 작은절골은 초현리의 절골 아래쪽에 자리해 있다.

용구지 동쪽에 달갈을 옆으로 세운 듯한 지역이 있는데, 이곳을 알피라 부르며 학이 날아와서 자리했던 마을이라 한다. 또한 용구지 동쪽으로 마을이 있는데 이곳을 부용이라고 한다. 지형이 부용꽃을 닮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 전해진다.

무능굴이라 하는 지역은 용구지 북쪽에 위치해 있으며, 이곳에는 옛날 몽고풍의 묘가 있어서 일제시대 고고학자들이 발굴하던 지역이라 한다. 이 마을은 신석기시대부터 사람이 정착하기 시작한 마을이라고 전해지나 확실하지는 않다.

-신곡리(新谷里)



신곡리 전경

백제시대 설림군에 속했고, 신라와 고려시대 서림군이었으며, 조선 초 서천군에 속했던 마을이다. 조선 말 1914년에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서천군 초치면의 지역으로 신기리, 지곡리, 구정리의 각 일부를 합하여 신기와 지곡의 이름을 따서 신곡리라 해서 서천군 시초면에 편입되었다.

신곡리는 1리와 2리로 나누어지며, 큰 지장대라 일컫는 산과 연결된 섭전봉 아래 둥그렇게 원을 그리며 형성되어 있는 마을이다.

이 마을에는 옛날 군 소재지가 들어서려 했다는 설이 전해지고 있으며, 전쟁시 피난처였다 한다.

지곡이라고 하는 지역은 조선시대 종이를 만들어 생계를 유지했던 마을이라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 하며, 지금도 마을 언덕에 닥나무 분포지역이 있다. 이곳의 종이는 한양에까지 잘 알려질 만큼 품질이 우수했다고 한다.

지곡 남쪽에 있는 지역을 유산말이라 하는데, 이는 버드나무가 우거져 산을 이루어 그 안에서 신선처럼 자리 잡고 살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지곡 북쪽으로는 양지바른 곳에 있다 하여 양

지뜸 이라는 곳이 있으며, 지곡 동쪽에 있는 지역을 부두라골이라 하는데, 이는 마을이 생기면서 겹쳐서 처음 생긴 마을이라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이곳에는 다른 지역 사람이 농사를 짓는다 해서 객지논이라 칭하는 곳이 있다.

전에 큰 은행나무가 있어 은행정이라 부르는 지역이 있고, 용곡리와 경계지역인 서낭당 고개에 2백여 년 묵은 상수리나무가 마을 나무로 지정되어 있으며, 주변 주민들이 수호신처럼 아껴 옛날에는 정월에 큰 제사를 지냈다 한다. 지금도 그 나무를 함부로 하면 마을에 화가 미친다 하여 보호하고 있다.

신기는 새로 생긴 마을이라서 새터라고도 부르며, 미륵처럼 생긴 바위가 서 있다 해서 미륵바위라 하는 곳이 있는데 지금은 수로 개설로 인해 땅속에 묻혔다 한다. 전에는 마을 주민들이 이 미륵바위에서 치성을 드렸으며, 아들을 못 낳은 주민이 치성을 드려 아들을 얻기도 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미륵이 땅에 묻히자 건너 마을 태성리에 재앙이 생긴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기도 하다.

신곡 2리는 분토폭, 바우재 등으로 불리는데 마을에서 분토(粉土)가 나온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 하며, 바우재는 마을 뒷산에 큰 바위가 있다 해서 부르게 된 이름이라 한다. 또한 귀여말, 구정이라고도 하는데 지형이 거북이처럼 생겨서 그렇게 부르다가 구전이라고 변했다고 한다. 이밖에도 구정 동쪽에 과녁을 세웠던 곳이라는 과녁들이 있다.

새터에서 신흥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녀배라 한다. 옛날 한 효자가 이 고개 근처에 묘를 쓴 후 시막을 짓고 삼년 동안 정성을 드렸는데 그 때 고개를 넘던 사람들이 시막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냇을 잃었다 해서 녀배라는 지명이 붙었다 한다. 마을에 낮은 고개가 있는데 이 고개를 거리고개, 또는 걸고개라 한다.

1981년도 범죄 없는 마을로 선정되었고 마을에 시문농협 창고 두 동이 자리 잡고 있다. 평해 구씨가 90%를 차지하고 있는 구씨 집성촌이다.

-태성리(台城里)



태성리 전경

백제시대 설림군 이었다가 신라 시대와 고려시대에는 서림군 지역이었다. 조선 초 서천군에 속했고, 조선 말 서천군 시왕면으로 주절리(注切里), 열달리 일부와 초처면의 지곡리, 용구리 일부를 합하여 태성이라 해서 서천군 시초면에 편입된 마을이다.

태성리는 1리 수왕굴과 2리 주절로 나누어지는데, 수왕굴은 냉갱이라 부르는 서쪽에 자리 잡고 있으며, 수왕이라고도 한다. 옛날부터 아무리 가뭄이 심해도 이 마을에는 물이 풍부하다 하여 수왕이라 하게 되었다고 하며, 집집마다 샘이 있었다 한다. 수왕굴 남쪽에 있는 큰 마을을 큰수왕굴이라 부르고, 그 옆의 작은 지역은 작은수왕굴이라 한다.

작은수왕굴 북쪽으로 있는 산을 부엉배 또는 부엉산이라 하는데, 산꼭대기에 있는 바위에 부엉이가 살았다 해서 부엉바위라 하다가 부엉배로 변했다 한다.

큰 수왕굴 북쪽에 있는 산을 시루봉이라 하며, 이는 산이 시루처럼 생겼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지금도 산봉우리에는 옛 성터가 있고 말달리던 자리가 있다고 하며 고고학자들이 다녀가기도 한다. 시루봉에 성이 있다 해서 태성리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큰수왕굴 서쪽에 있는 골짜기를 여수굴이라 하며 골짜기에 여우가 많이 살았다는 지역이다.

마을 북편에 있는 느티나무는 태조의 선사 목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매년 정월 대보름날에는 이곳에서 고목제를 지낸다. 고목제는 오랜 옛날부터 전해 오던 마을 풍습으로 남녀노소 모두 모여 느티나무에 절하고 치성을 드리며, 이 날은 옷놀이와 함께 음식을 마련하여 주민들이 모두 함께 즐긴다.

주절이라 부르는 지역은 이곳에 봉선저수지가 생기기 전부터 그렇게 불려왔는데, 농사철에 마음대로 물을 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던 말이 저수지가 생기면서 예언이 맞았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다.

수왕굴 북쪽 지역을 냉갱이라 하며 봉암 마을과 연계되어 있고, 마을에 냉이가 많아 부지런하게 일하면 장자(長者)가 될 마을이라고 전해진다. 또한 장자울이라는 곳은 장자들이라고도 하는데 옛날 들에 크게 살던 장자의 터가 있다 해서 그렇게 부른다고 전해진다.

주절에 있는 정자나무 곁에 1923년에 세워진 효자 서희진 정려문이 있다. 서희진은 천성이 순수하고 효성스러우며 어려서부터 부모 말을 거역한 일이 없고 자라서도 빈곤하지만 품팔이를 하여 부친을 공양하였다. 부친이 위독하자 손가락을 베어 피를 드려 3일의 목숨을 연장했으며, 또한 돌아가신 후에도 장례 제례에 어긋남이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독립운동가 고시상 선생이 이 마을 출신이다.

- 봉선리(鳳仙里)

봉선 저수지가 있어 주변 풍경이 아름다운 마을이다.

이 마을은 백제시대 설림군이었고, 신라와 고려시대에는 서림군에 속했었다. 조선시대 서천군이 었다가 조선 말 서천군 시왕면으로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지장리(支壯里), 세원리(世院里), 냉정리(冷井里), 봉암리(鳳岩里), 선돌리(仙疔里), 얼달리 일부를 합해서 봉암과 선돌의 이름을 따서 봉선리라 하여 서천군 시초면에 편입되었다.

봉암 남동쪽에 있는 지역을 지장이라 하고 뒷산을 두루재라 하는데, 매년 마을 사람들이 음식을 만들어 이 재에서 제사를 지냈다 한다.

봉암 북동쪽에 있는 지역을 선돌이라 한다. 이는 마을에 돌이 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 전해진다.

선돌 서남쪽을 봉암이라 하는데 마을 뒤에 부엉이가 살았다는 부엉바위가 있다 해서 봉암이라

하며, 봉선리에서 으뜸 되는 마을이다.

서천과 공주 간 고속도로 공사 중 이 마을 주변에서 발굴 된 청동기 시대부터 마한, 백제, 조선 시대에 이르는 유적 및 유구 정비를 통한 시대별 문화상을 재조명하고자 하는 봉선리 유적공원 조성사업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 중에 있다.

- 풍정리(豊亭里)



풍정리 전경

풍정리는 백제 때 설림군에 속했었으며 신라시대와 고려시대에는 서림군 소속이었다. 조선 초 서천군에 소속됐었는데, 조선 말 서천군 시왕면의 지역으로 풍동과 행정리를 합하여 풍정리라 해서 서천군 시초면에 편입된 마을이다.

신굴과 유산, 행정 또는 향정 등 3개 자연마을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도 외지에서는 이 마을이 신굴로 더 잘 알려져 있다. 마을에 신나무가 많아 신굴이라 부르다 변하여 지금의 신굴이 되었다고 전해진다.

유산에는 일제 때 면사무소가 있었다 하며, 수양버들이 많고 낙천적인 마을이라 그렇게 불렀다 한다. 행정은 행동 또는 오능정이라고도 하는데 오랜 세월 은행나무가 서있어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후암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당산재라고 부르는데 얼마 전까지 마을 주민들이 칠월 칠석을 기해 산신제를 지냈고, 천연두 등 전염병이 돌 때나 비가 오지 않을 때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행정 입구에는 뱃고쟁이라 부르는 지역이 있는데, 옛날에는 이곳까지 바닷물이 들어와 배를 댔다고 한다.

홍씨 부자가 살았었다 해서 홍부터라 부르는 지역이 있는데, 지금도 이곳을 파보면 기와가 나온다고 한다.

들충나무라 부르는 곳은 전에 사철나무 군락지였다고 하며, 서당이 있었다 해서 서당굴이라 부르는 지역이 있고, 기쁨에도 마르지 않는다는 병얼샘이 있으며, 이밖에도 안뜸, 산쟁이, 구렁목, 양지편 등 지역의 특징을 살린 지명들이 많다.

故 백흥구 씨가 마을에 논 8백평을 회사하여 마을 동답으로 운영하여 수익금으로 마을 공동 회비 등 재정에 충당하고 있다. 따라서 마을에서는 그 공적을 기려 공적비를 세워주었다.

봉선리 유적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풍정리 산성 발굴 조사가 이루어진다.

-후암리(厚岩里)

후암리는 2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백제 때 설림군에 속했던 마을이며 신라와 고려시대에는 서림군에 속했었다. 조선 초에는 서천군이었고 조선 말 서천군 시왕면의 지역이었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갈물리, 유도리, 후동리 일부와 한산군 하북면 신리의 일부를 합쳐 후암리라 해서 서천군 시초면에 편입된 마을이다.

뒷굴이라 하는 지역은 마을 뒤편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이곳에는 마을 주민 이선규 씨가 작은 암자를 지어 놓고 부처를 모셔놓은 곳이 있다.

마을 안쪽에 자리 잡고 있는 곳을 안텃굴이라 한다. 이 마을은 조선시대 이괄의 난 당시 천안 군수를 지내던 사람이 이곳으로 난을 피해 와서 살게 된 것이 현재 이 마을에 사는 고성 이씨의 16대 선조라 하며, 그로 인해 고성 이씨가 많이 살았고 지금도 마을 주민의 5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산 모양이 마치 매처럼 생겼다는 매봉재 꼭대기에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를 유독바위라 한다. 바위의 형상이 소의 머리처럼 생겼다 해서 유독바위, 또는 유두바위라 했다고 한다. 이 바위 아래에 있는 마을을 유동바위, 유도암이라 한다.

후동 동쪽으로 있는 지역은 용두정이라 한다.

제9장 문산면(文山面)

서천 8경중의 하나인 천방산과 문산저수지가 자리 잡고 있어 군민 휴양지로 개발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

문산면은 마한 때 비리국의 북쪽에 위치해서 숲을 이루던 곳으로 백제 때는 설림군에 속했고, 신라시대 서림군 소속이었다. 고려 말부터 많은 선비들의 낙향지로 성리학의 학자들이 많이 살았다 한다. 조선시대 1413년(태종 13)에 서천군에 소속되어 문산면의 활발한 발달이 이루어지던 곳이다.

행정구역으로는 두산동면이라 하여 신농 외 15개리를 관할하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문장면의 우산 외 10개리와 초처면의 흥현리 일부, 판산면의 둔덕리 일부, 비인군 이방면의 만덕리 일부를 통합하여 문장과 두산의 이름을 따서 문산면이라 하고 구동, 금덕, 금복, 등고, 문장, 북산, 수암, 신농, 지원, 은곡을 관할하며 서천군에 편입되었다.

문산면은 선비가 자리한 산세라 하는데, 조선 인조 때 조속(趙涑)의 선비가 산림에 묻혀 살며 끊임없는 벼슬길에의 유혹에도 굽히지 않은 행동은 산세에 따른 것이라 해석되기도 했다. 조선 중엽 유학의 내면적 충실을 지키며 이를 생활에 반영한 학자들이 운집하여 살던 곳이다.

지리적으로 마산, 시초, 판교, 종천, 부여군 옥산면을 경계로 하고 있는 중 산간 지대로 소평야를 이루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이다.

동쪽으로 지원리가 동경 126°471', 서쪽으로 북산리가 126°421'에 위치하고, 남쪽으로 문장리가 북위 36°05', 북쪽으로 은곡리가 36°10'에 자리 잡고 있으며, 총 2,814ha(전 184, 답 507, 임야 1천849, 기타 274)의 면적을 갖고 있으며, 임야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006년 12월 31